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8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TV50년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09	10 너는 내 운명(재) 40 수목미니시리즈 <총각네 야채가게>(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10 좋은아침
10	50 김수미의 소꿉(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 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즐거운 책 읽기 55 바른길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채널A 뉴스와 경제 20 이수근의 바퀴달립니다(재)	00 KBS 뉴스12	00 MBC 뉴스 15 시사특별기획 코이카의 꿈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20 다섯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한국재발견(재)	05 주병진 토크 콘서트 스페셜	30 도전! 슈퍼대(재)
2	20 그 여자 그 남자 스페셜(재)	00 KBS 뉴스 10 겨울영화 특선 앙코르(재) (스포츠는 건드리다 제2편)	10 의뢰인 K(재)	00 SBS뉴스 10 건강칼럼(재)
3		00 KBS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05 주로영 동물탐험(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10 세계의 축제 스페셜
4	00 불멸의 국가대표 연정진(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TV뉴스 50년 <격동의 현대사>(재)	00 TV 유치원 30 특선애니메이션 <프랭키와 친구들>	00 스킨2 30 휴먼다큐 나눔(재)
5	00 박종철의 시사토크 <레도 난야>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감성여행 간이역 스페셜(재)
6	00 채널A 뉴스네트워크 20 이트스쿨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송년특집 생방송! KBC 투데이
7	20 너는 내 운명 40 스토리텔링 매직쇼(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TV50년 기획 스타인생극장 <김용림 가족>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님이>
8	50 수목미니시리즈 <총각네 야채가게>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2011 트로트 대축제 1~2부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2011 SBS 가요대전 1~2부
9		00 KBS 뉴스9	55 2011 MBC 방송연예대상 1~2부	
10	00 뉴스A 50 컬러 오브 우먼(재)	00 TV50년 진실의 기록 <다큐멘터리 50년> 50 아름다운 사람들	55 해피투게더	
11		00 KBS 뉴스라인 40 송년기획 현장로 동행		
12	00 뉴스&스포츠 20 스토리텔링 매직쇼(재)	25 KBS 뉴스 35 특집 콘서트 필2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남독의 발견	45 나이트라인

하정우·최민식 “부산사투리는 너무 어려워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내년 2월 개봉

“부산 사투리를 익히려고 활영 한 달 전부터 부산에 내려가서 어학연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어로 연기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배우 하정우는 28일 한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제작보고회에서 사투리 연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내년 2월 2일 개봉하는 이 영화에서 부산의 최대 폭력조직 두목 ‘최형배’ 역을 맡았다. 지난해 영화 ‘황해’에서 연변 사투리를 연기했던 그는 “부산 억양을 받아들일 때 연변 사투리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걸 지우는 게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직폭력배 연기를 위해 한 번 분장에 10시간 이상 걸리는 문신을 하느라고 생뚱맞은 경험을 전했다.

“아까워서 촬영 후 지우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민소매티에 모자를 쓰고 호프집에 가면 굉장히 상냥하게 맞아줬어요(웃음). 어르신들은 어떻게 배우가 문신을 했냐고 다그치시기도 하고...”

최민식은 세관 공무원 출신으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야합해 온갖 로비를 하고 다니는 인물 ‘최악현’을 연기했다.

최민식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평범한 가장이자 남편으로 살다가 건달과 연결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격랑 속을 헤매게 되는 인물”이라며 “민간인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반달’이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최민식 역시 부산 사투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투리 연기를 다시는 안 한다. 단 기간 내에 부산 출신 사람처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영화에는 최근 종영한 SBS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무사 ‘무홀’로 큰 인기를 끈 조진웅도 출연했다. 하정우와 맞서는 경쟁 조직의 두목 역할이다.



<왼쪽부터 조진웅·하정우·최민식>

조진웅은 최민식과의 연기에 대해 “선배님은 (연기를) 진짜로 하시는구나, 진짜로 그 순간을 사시는구나”라고 느꼈다며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자극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한석규와 최민식을 비교해 보라는 질문에 최민식이 섰 작구를 던지는 투수라면, 한석규는 다 받아주고 보듬어주는 포수 같다고 비유했다.

가수 신효범, MBC ‘나 가수’ 합류한다

가수 신효범(사진)이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출연한다. ‘나는 가수다’ 관계자는 28일 “신효범이 ‘나는 가수다’에 합류한다”며 “지난 26일 11라운드 2차 경연 녹화를 지켜봤고 다음달 2일 진행되는 12라운드 1차 경연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88년 MBC ‘신인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며 데뷔한 신효범은 ‘난 널 사랑해’, ‘연애나 그 자리에’, ‘술을 땀 화장을 해요’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지난 9월 tvN 토크쇼 ‘러브송’에 출연해 “어떻게 음악하는 사람에게 등수를 매기냐”며 ‘나 가수’ 포맷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중이 가슴을 뚫으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고 평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음 12월 5일 戊午)

子	36년생 자치 잘못하다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48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60년생 의상이나 두려움을 품을 필요는 없다. 72년생 지출도 미래를 향한 투자로 생각하고 실행하자. 84년생 크게 될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보느니라. 행운의 숫자 : 26, 64	午	42년생 상대의 마음까지 읽는다면 효과가 더 될 것이다. 54년생 오전에 복잡했던 일이 오후에 정리된다. 66년생 율가할 수 있는 자생력까지 키워라. 78년생 조금만 더 진취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27
丑	37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일을 꾀하라. 49년생 크게 한 일도 없이 이익을 얻겠다. 61년생 요행을 바라다면 허송세월만 하리라. 73년생 모퉁지기 칭찬이란 주변에서 해주어야 효과가 있느니라. 85년생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논하라. 행운의 숫자 : 88, 17	未	43년생 생각지도 않은 일을 듣게 되더라도 대범하게 넘어가자. 55년생 자신이 숭신수발하면 자연히 따르리라. 67년생 굳이 좌지우지하려 말고 상대가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자. 7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 행운의 숫자 : 79, 68
寅	38년생 달변 삼키고 쓰면 뱀다가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50년생 불편한 일이 있거든 개선해 나가면서 처리하라. 62년생 바야흐로 고강도의 조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 74년생 돌발 사태에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46, 41	申	44년생 정에 얽매어서 큰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느니라. 56년생 편안한 하루가 되리라. 68년생 순식간에 상호 입장이 바뀔지도 모르니 막말을 자제하라. 80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36, 38
卯	39년생 일이 안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손해를 보는 법이다. 51년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 63년생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75년생 거시적 관점에서 실용적인 교육을 하자. 행운의 숫자 : 30, 73	酉	45년생 상대가 없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감동할 것이다. 57년생 성공을 향한 굳센 신념으로 행하라. 69년생 쉽게 잠들었다가는 잠으로 난처해 질 수 있다. 81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58, 37
辰	40년생 상황이 어렵다고 정경적으로 해오던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다. 52년생 상대의 요청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하라. 64년생 스스로 하기 힘들면 도움을 받으시라도록 처리해야 한다. 76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16, 83	戌	46년생 감정을 앞세워서 대립적인 국면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58년생 회소식을 접한다. 70년생 현재일우의 기회는 현명한 안목을 가진 이에게만 보인다. 82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93, 07
巳	41년생 유희적인 재스처가 더 낫다. 53년생 말 못할 처지에 놓인 이를 소신껏 도와 주라. 65년생 막상 담변하게 되면 처리해 나가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77년생 옛일을 경험 삼아 미래를 계획하자. 행운의 숫자 : 47, 40	亥	47년생 평생에 걸쳐서 진행해온 고생의 보람이 있겠다. 59년생 이해 타산을 하지 않는 순수한 이의 도움이 있겠다. 71년생 이전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83년생 모두가 함께하는 일에는 꼭 동참하라. 행운의 숫자 : 45,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20회 光日盃
광주·진남 직경비록대회

결승국 7보(163~195)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白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초읽기가 빚어낸 운명을 바꾼 실착

전보에서 ㉔로 찢힌 수가 초읽기가 빚어낸 실착으로 이 판의 운명을 결정지은 한 수가 되었다. 조영배 5단은 시간연장을 위해 선수라고 두었으나 백 전노장인 김광식 5단이 감각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알아채고 흑 163으로 내려서 승부의 저울추를 흑 쪽으로 살짝 돌려놓는다. ㉔로는 ‘참고도’의 백 1, 3을 선수하고 하면 5로 찢히는 것이 컸다. 백 9까지 되고나면 흑 10과 백 11은 맞보기인데 계가를 해보면 백이 전혀 밀리지 않은 눈터지는 미세한 형국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은 흑이 ‘가’로 끊어 오더라도 백 ‘나’가 있어서 크지않다. 백 174로는 굳이 끊으려면 ‘A’에 붙이는 수가 있었으나 흑이 ‘B’로 붙여 사는 수가 있어 의미는 없었다. 뒤늦은 백 182에 흑 183으로 반발한 것이 강력했으며 흑 195까지 흑 대마가 함몰당해서 허망하게 종국을 맞이하고 있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Are you free? 시간 있으세요?</p> <p>A : Hi, Nully. Are you free this Saturday? B : Yes. Why? A : Would you like to go to a party with me? B : OK! Will you pick me up at my place? A : Sure. Is eight o'clock alright? B : That'll be fine. A : See you then.</p> <p>A : 안녕, 널리 씨. 이번 토요일 시간나세요? B : 네. 왜요? A : 저하고 파티에 가실래요? B : 좋아요. 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실래요? A : 그럼요. 여덟시면 괜찮겠어요? B : 좋아요. A : 그때 봅시다.</p> <p>* Are you free now? = Are you available now?</p>	<p>麻中之蓬(마중지봉) 삼 마, 가운데 중, 갈 지, 쑥 봉</p> <p>마중지봉(麻中之蓬)은 삼밭 속의 쑥이라는 뜻으로, 꿈은 삼밭 속에서 자란 쑥은 곧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p> <p>“서쪽 지방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은 사간(射干)이다. 줄기 길이는 네 치밖에 되지 않으나 높은 산꼭대기에서 자라 백 길의 깊은 연못을 내려다본다. 이는 나무줄기가 길어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높아서 그런 것이다. 쑥이 삼밭에서 자라면 불들어 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함께 검어진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거처를 정할 때 반드시 마을을 가리고, 교유할 때는 반드시 꿈은 선비와 어울린다. 이는 사악함과 치우침을 막아서 중정(中正)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p> <p>[출전] <순자> 권학</p>	<p>拍苍蝇 pāi cāngying 파리 날려 잡고 있다</p> <p>장사가 잘 안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파리 날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파리(苍蝇) 잡는다(拍)’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중국 모두 ‘파리’를 들어 표현하는 것을 보니, 파리가 들끓게 되는 음식장사를 빗대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러곤 안보이고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없으니 파리가 잡고 있다는 말이겠지요.</p> <p>요즘엔 파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파리로 살기 힘든 도시에서 인간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p>	<p>行っていらっしやい。 다녀오세요</p> <p>A : 先生、ちょっとお願いがあります。 B : はい、何ですか。どうぞ。 A : 家族の集まりがあるので、午後から帰ってもいいですか。 B : 仕方ありませんね。行っていらっしやい。</p> <p>A : 선생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B : 예, 뭘테요. 말씀하세요. A :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후부터 집에 가도 괜찮습니까. B : 어쩔 수 없군요. 다녀오세요.</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p>